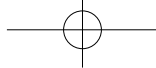


법무사 필승전략

Learning Guide Book



0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6년차인 나는 35세 남자이다.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2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상태이다. 전공은 행정학이지만 전공공부와는 또 다른 법과목에 당황스럽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중이다.

▶ 학습수준 : 하

▶ 시험준비 경험 : 무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전공 : 행정학

Advice

직장생활과 시험공부의 병행은 한마디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남다른 꼼꼼한 학습계획과 실천의지가 있다면 성공이 가능하다. 직장인은 대학생이나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만큼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필수적이다. 주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동영상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목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이므로 반드시 시간이 없는 중에도 강의 등을 통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금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이라면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 먹은 일 좀 더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면 합격의 길은 멀다. 우선 출근시간을 이용해 전날 학습한 내용의 요약집을 외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본인과 의 전쟁 기급적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집으로 직행해서 책상에 앉아라. 졸리면 5분만 눈을 감고 쉴 것! 그럴 땐 5분만 졸아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그리고 바로 학습에 들어간다. 정해진 스케줄을 반드시 완수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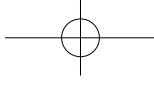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 토~일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에게 주말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에게는 재충전보다는 에너지를 최대한 소비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주말은 기본이론보다는 주중에 학습한 내용의 심화학습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주말처럼 공부에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별로 없다.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스케줄상 기본이론의 학습과 심화학습까지 어느 정도 되면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인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모의고사는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본인이 전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느낄 때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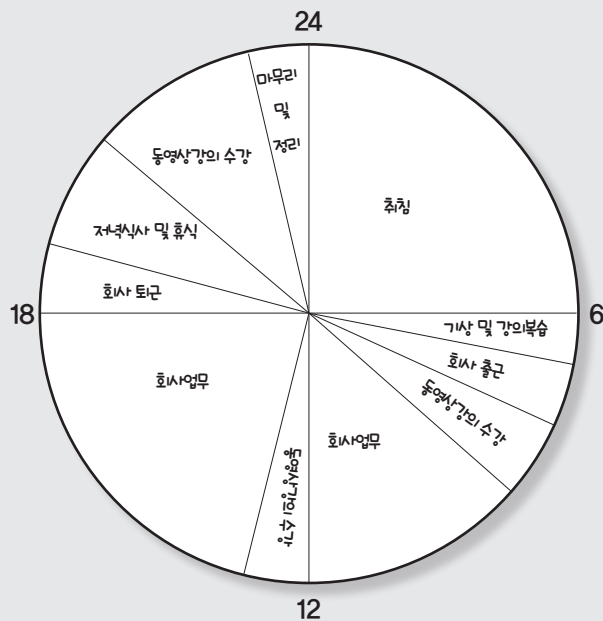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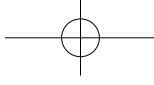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 추약과목 보충과 심화학습				← 문제풀이 과정 → 단위별 문제풀이로 문제적응력 향상				← 기본이론 과정 → 과목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초 실력 배양			
				← 핵심요약 과정 → 최종마무리 학습 통한 시험 완전 대비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7:00	기상 및 강의복습
	07:00~08:00	회사출근
	08:00~09:00	동영상강의 수강
	09:00~12:00	회사업무
오후	12:20~13:00	동영상강의 수강
	13:30~18:00	회사업무
	18:00~19:00	회사토근
	19:00~20:30	저녁식사 및 휴식
	20:30~23:00	동영상강의 수강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0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대학생이다”

대학 3학년인 나는 22세의 남자이다. 로스쿨 준비 전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좋을거 같다는 판단에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는 법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무작정 법무사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 학습수준 : 하

▶ 시험준비 경험 : 무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전공 : 경영학

Advice

현재 대학생이고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우선 방학 중 학원 종합반 수강을 권한다. 요즘 법무사 시험공부는 정보 근접성 없는 합격이 쉽지 않으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쌓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여름방학에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과목별 1회독을 한 후 학기 중에 동영상강의를 이용하여 개념내용을 한 번 정리하고, 겨울방학에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실력을 쌓는다면 탄탄한 실력이 마련될 것이다.

그 후 자신의 목표에 따라 마무리 특강 등을 수강하면서 내용정리를 해나가길 바란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학원 강의 일정에 따라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연습과 복습은 필수!!

○ 일요일 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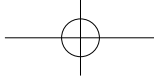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수험은 장기간을 요하는 레이스다. 따라서 학습시간과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휴식을 취하되 다음 주 일정까지 망칠 수 있는 무리한 휴식은 절대 금물.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취약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생각해본다.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고인 매듭을 풀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취약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조정학습을 실행해보자.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자기 실력을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복습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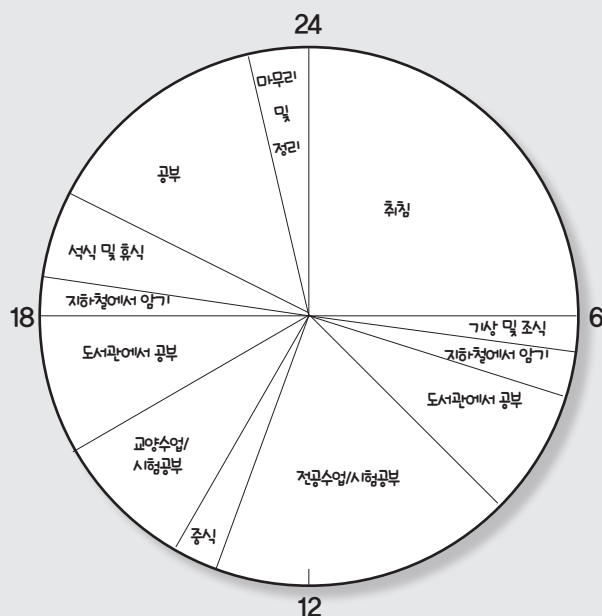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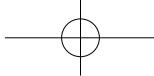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방학을 맞이하여 단기간 독점을 위한 추가과목 핵심요약 수강						← 기본이론 과정 방학을 맞이하여 학원 이론 종합반 강의 수강			← 기본이론 과정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기본 이론 학습		
← 문제풀이 + 핵심요약 과정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단원별 문제풀이로 문제적응력 향상 및 최종마무리 학습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6:30	기상 및 조식
	06:30~07:00	지침·절에서 암기
	07:00~09:00	도서관에서 공부
	09:00~13:00	전공수업 / 시험공부
오후	13:00~13:30	중식
	13:30~16:00	교양수업 / 시험공부
	16:00~18:00	도서관에서 공부
	18:00~18:30	지침·절에서 암기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30	공부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0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전업수험생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인 나는 올해 29세이다. 대학전공은 컴퓨터 공학이고 졸업한 후 잠깐 회사도 다녔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대입구역 수험가에 입성했다.

경제적으로

- ▶ 학습수준 : 하
- ▶ 시험준비 경험 : 무

-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 전공 : 컴퓨터 공학

Advice

이과 계열에 관한 공부에는 이력이 나있지만, 특히 법학에 관해서는 공부해본 적도, 관심도 없었던 상태이므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점에서 법무사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시험에 대한 전략적 지식을 쌓은 후 전문학원에서 수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퇴직을 한 상황이므로 하루의 대부분을 수험공부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성실히 공부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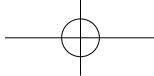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수험 기간 초반에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각 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야 한다. 보통 학원에서는 2개월을 기준으로 기본서, 문제집, 심화이론 등에 관련된 강의가 개설 · 진행되는데 그에 맞춰서 수험 전체의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학원, 오후에는 개인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며, 하루 공부량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일요일 학습 운영

일요일이라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공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휴식 시간을 갖되 2~3시간 정도만 일주일의 공부를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그 주에 공부한 부분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일요일의 무리한 활동은 내일의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 스터디 활동을 통한 학습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럴 때는 학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신의 일정이나 공부 성향에 맞는 스터디를 골라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자칫 늘어지기 쉬운 수험생활을 다잡을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마음이 맞는 수험생과의 개별 스터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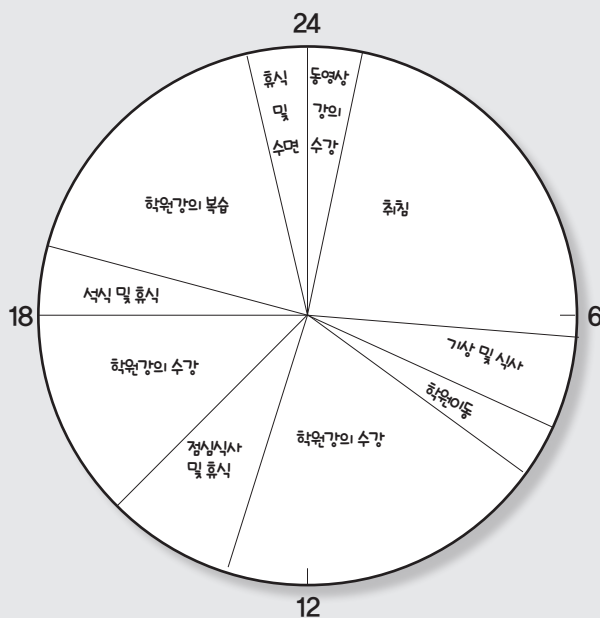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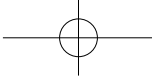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취약과목 보충과 심화 학습			← 문제풀이 과정 단원별 문제풀이로 문제정정력 향상		← 핵심요약 과정 최종마무리 학습 통한 시험 완벽 대비		← 기본이론 과정 과목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초실력 배양			← 기본이론 과정 스터디를 통한 테마별 집중 학습 및 동영상강의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24:00~01:30	동영상강의 수강
	01:30~06:30	취침
	06:30~08:00	기상 및 식사
	08:00~09:00	학원이동
오후	09:00~13:00	학원강의 수강
	13: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8:00	학원강의 수강
	18:00~18:30	집으로 이동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00	학원강의 복습
	23:00~24:00	휴식 및 수면





02

법무사 필승전략 - 최적의 학습스케줄 짜기

■ 1단계 학습계획 세우기

◎ 생활 패턴별 학습유형 선택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주부라면, 전업수험생이라면?

생활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스케줄링이 기본 중 기본이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험생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학원 중합반을 수강할 수도 있고, 동영상강의 혹은 독학으로 승부를 걸 수도 있다.

◎ 월간, 주간, 일일 스케줄

목표는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한 후 먼저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1주, 1일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자. 과목별 진도, 동영상 강의 수강 계획 등에 맞추어 자신이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설정하되 반드시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해야 하며, 과욕은 절대 금물이다. 도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스케줄을 실천하는 기쁨도 생긴다.

■ 2단계 학습계획 실천하기

◎ 꾸준히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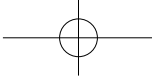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계획한 학습량을 소화해 내려면 무엇보다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일단 책상 앞에 앉았으면 적어도 2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 태도와 학습 태도는 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1시간 안에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다 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과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 스케줄표 점검은 필수 중의 필수다

스케줄표는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수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 학습 진행도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 3단계 피드백 및 계획 수정하기

학습 현황 및 실천도 확인을 통해 내가 계획한 스케줄이 나의 상황과 학습 패턴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체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스케줄표를 가질 수 있다.

◎ 목표 달성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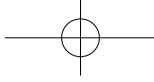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목표 달성 점검은 주간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지난 한 주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 예시**
1. 목표 달성치 : 80%
 2. 달성 소감/미달성 이유 :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 집안 일도 많았고 감기도 걸렸다.
 3. 자기 공부 시간 : 목표 10시간 (실행 : 6시간)

◎ 학습 진행 분석하기

긍정 요소에는 내가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등을 정리해 보고, 부정요소에는 내가 못한 것, 아쉬운 것, 실패한 것 등을 정리해서 개선사항을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하자.

- 예시**
1. 긍정요소(GOOD POINT :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 나만의 맞춤 노트 정리를 잘했다.
 - 지하철에서 매일 20분정도 민법 조문집을 봤다.
 - 12시 취침, 6시 30분 기상을 지켰다.
 2. 부정요소(BAD POINT : 잘못된 점, 아쉬운 점, 실패한 점)
 - 저녁 시간에 드라마를 4차례 봤다.
 - 민법 동영상 강의가 하루 밀렸다.
 - 목요일에 과음을 했다. (치명적)
 3. 개선사항
 - TV를 끊자. 특히 드라마는 피할 것. 차라리 휴식을 위해 보는 경우라면 1회적인 영화나 다큐.오락프로그램을 보자
 - 술은 절대 금물. 가볍게 맥주나 와인 한잔 정도는 OK
 - 동영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말자!



03

법무사필승전략 - 자기관리법

■ 수험생 건강관리 이렇게 하자!

◎ 아침식사가 중요하다

아침식사는 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능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수험생활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 오랜 시간동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야식은 가능한 삼간다.

한의학에서는 "사상비위(思想脾胃)"라 하여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그로 인해 비위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쓸데 없는 공상이 많아져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식사를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는데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가볍게 하고, 저녁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또한 포만감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로나 졸음, 체중증강의 원인이 되므로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바른자세를 습관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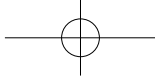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는 두통과 함께 뼈, 근육, 소화기 계통이 고장나기 쉬우며 척추측만증(허리구부림증)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나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른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속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트레칭은 신체적 피로나 근육의 건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식사후에는 바로 책상 앞에 앉기보다는 잠깐동안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즐겨 듣던 음악도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많이 자는 것보다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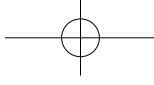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단시간을 자더라도 숙면한 상태면 피로가 풀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해져 두뇌활동이 활발해진다. 되도록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많이 함유된 음료는 삼가고, 커피나 청량음료 보다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도록 하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20

1. 추상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2. 목표달성을 위해 마감시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3.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4. "잘 할수 있다"는 자기암시의 힘을 활용하다.
5. 생각과 동시에 입버릇처럼 반복함으로써 자시를 만들어 간다.
6.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주 웃는다.
7.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힌트가 잘 떠오른다.
8. 기회가 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9.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건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10. 뚜렷한 테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한다.
11. 집중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중간중간 취한다.
12. 하루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몇일에 나누어서 일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13. "이 부분만 한다" 혹은 "이시간까지만 한다"는 식으로 범위와 시간을 정한다.
14. 조금빠른 속도로 걷는다.
15. 러닝머신이 아니라 밖에서 걷는다. 사람이나 풍경등이 풍부한 자극을 준다.
16. 피곤하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한다.
17. 지나친 공복은 금물이다. 뇌는 하루 120그램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18. 콜레스테롤은 집중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19.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함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알린다.
20.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

- 나카지마 다케시 <짧은 시간 집중력 관리법> 중에서 -



법무사 합격하기 15가지 학습전략

1. 매일 일정시간의 공부량을 확보할 것

공부시간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단위시간당 집중도이다. 잡념을 제거할 것.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구호, 좌우명을 책상에 적어놓고 잡념이 발생시 속으로 구호를 외쳐 보자.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늘려야 한다. 실제학습시간을 종이에 적어보면 10시간 넘기가 어렵다. 그이유는 시간누수가 많기 때문이다. 커피타임, 잡담시간 등을 줄이자. 이것부터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이다.

2. 서브노트작성 혹은 밑줄치기를 할 것

서브작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밑줄치기가 유용. 밑줄치기의 경우 1회독 때는 샤프, 2회독은 파란볼펜, 3회독은 노란형광펜, 4회독은 주황색 형광펜, 5회독 때는 빨간 플러스펜을 쳐서(자를 대고 깨끗히) 마지막 정리때는 주황색 형광펜과 빨간 플러스펜을 친 부분만 읽는다. 1회독때 샤프로 하는 이유는 첫회독이라 중요도 선별의 어려움 때문이다.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밑줄이 줄어들게 되어 정리에 합격의 강한 확신이 든다.

전과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시험직전에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 시험 전 마지막 1개월 4회독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시험의 당락은 마지막 1개월에 있다.

이렇게 마지막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여전히 예전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공부(눈으로만 공부)하면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공부가 떠분해지며, 슬슬 입사시험에 기웃 거리게 된다. 결국 어쩔수 없이 돌아올 것이면서....

3.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mind control을 할 것

합격 후의 자기모습을 많이 상상해 보자.

4. 기출문제를 정리할 것

출제교수도 기출문제를 보고 전년도와 수준을 맞춘다.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보면 책들에서 기출문제 제외하면 남는 문제가 얼마 없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5. 객관식 문제집은 틀린 것은 X, 찍은것은 O 등의 표시를 해둘 것

문제집에 이런 표시를 해두면 약1/3정도 분량의 문제만 남아 마지막 정리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마지막 1개월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문제를 풀다가 다시 풀 가치도 없는 것은 과감히 문항번호에 XX 표시를 한다.

오답노트도 권장할만 하다. 오답노트는 자주 틀리는 문제의 보기를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는 것인데, 정리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6. 단권화할 것

책을 한권보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서 한 권을 본 후 전체적인 체계가 잡힌 다음에 참고서를 보고 추가할 사항은 기본서 여백에 옮겨 적을 것.

그 다음에는 참고서를 다락에 넣어버리자. 책상에 있는 많은 책이 우리 가슴을 짓누른다. 볼 책만 선별하여 책상에 놔두자. 정신안정과 자신감에 도움을 준다.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씩만 두자.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불안감에 편승하여 요약집이니 핵심노트니 하는 책이 난무하지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책에서 다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책 구입을 하지마라. 구입해도 새책은 머리말만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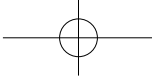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자신없는 과목이 책이 많은 법이다. 책이 많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시간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중독에 걸린 것처럼 책을 산다.

그래야 기본이 좋아진데나, 책값이 고가이므로 자중하자. 제일 한심한 경우는 산책 또 사는 친구이다.

7. 계획 수립할 것

1년은 6개월, 3개월, 1개월로 나눈다. 마지막 1개월은 15일, 10일, 5일, 1일로 나누어 전과목이 마지막 1월중 4회독 되어야 한다. 결국 6개월에 1~2회독, 3월에 1회독, 마지막 1개월에 4회독되어 총 6~7회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1개월 물리적시간은 1개월이지만 체감시간은 1년에 버금간다. 그리고 바로 이 1개월에 당락이 결정된다. 이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대부분 불합격에 대한 대비로 피병인 경우가 많다. 합격의지가 강한 자는 병도 이긴다. 평소에 운동과 비타민제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주자.



8. 법전을 참조할 것

법전을 항상 옆에 놔두고 해당 법조문을 찾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자. 책에 법조문이 나와도 법전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데 이렇게 학습하면 후회하게 된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명심하자.

9. 목차를 중시할 것

모든 기본서에 목차를 복사하여 해당과목 학습시에 옆에 놔두고 지금 어디를 보는지 찾아보면 공부하자. 이것이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학습이다. 목차를 자주 보면 장, 절 등의 큰제목이 보이고 그에 딸린 내용들을 알게 된다. 부모와 자식관계를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저자는 목차로써 자신의 의견개진의 흐름과 방향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목차에 친숙한 공부를 하면 단편적인 공부를 한사람보다 학습시 남는 내용물이 누진적으로 배가된다. 빠가 있어야 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0. 문제집을 볼 것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 응용력을 키우자. 기본서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문제집해설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풀 때는 해설과 답을 가리고 풀고, 문제해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므로 답에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풀 때는 짝수, 홀수로 나누어 푸는 것이 좋음. 유사문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빠른 진도가 빨라져 기분이 좋을 때 문이다.

수험생 중에는 단원별로 나누어 이론공부 끝나면 곧바로 해당단원 문제를 풀고 다맞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방금 본 것 기억 못하는 바보도 있나? 이론과 문제풀이에 시간간격이 있어야 진정한 평가가 된다.

11. 바뀌는 법령에 주의할 것

바뀐 법령에서 시험 빈출한다. 또한 판례에도 주의하자. 판례는 오답사비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교수들이 모든 법학시험과목을 출제할 때 계속 선호한다.

12. 생활을 단순화 시킬 것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관계된 일만하자. 시험기간에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새털 같은 나날이 아니다. 헤어지라는 뜻은 아니고 현명히 대처하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공부를 방해하는 잡다한 여러가지가 상존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보자. 그리고 해결방안을 써보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 문제의 핵심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곤란문제는 합격 후로 미루고 공부에만 전념하자.

13.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기분에 따라 공부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규칙적인 학습을 위해 타이머를 이용하던지, 공부시작 시각, 휴식시간, 식사시간, 공부끝난 시각을 매일 체크하여 자신의 공부패턴과 총 공부시간 등을 매일 종이에 적어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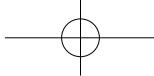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개중에는 기분 내키면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부터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 기분파형 수험생은 수험장수파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14. 모의고사를 보자

학습량에 비해 시험운이 없는 분은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응용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시험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속이지 말자. 특히, 2차 시험을 위해서는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15. 합격기를 보자

수험장지 등에 게재된 합격기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 합격기를 보고 다아는 시시한 것을 썼다며 코웃음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 합격은 아는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남보다 더 실천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나만의 슬럼프 극복법

아무리 의지가 강한 수험생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슬럼프!

수험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때 도 있습니다. 처음 굳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긴장감도 방향 감각도 무뎌질 때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합격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수험생활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법무사 시험준비생이라면 공부 자체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집과 회사에서 이런저런 눈치가 보이고 빨리 합격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니 몸만 자꾸 힘들어지죠. 또한 한동안 공부에 손을 놓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 뿐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격통지서를 쥐는 그 순간 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먼훗날 법무사가 되어 “아,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도 뿌듯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